

10-17-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7:1-27

본문: 로마서 5:1-11

제목: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값없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릴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동시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누릴 소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히 10:10)고 증거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증거했다 (히 9:14)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정결케 될 때 성령께서 몸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그 특권 역시 자신의 선택 사항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후 5:17-20)고 증거하면서 권면했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편에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대사로서의 삶을 통하여 더욱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름으로써, 다시 말해서 세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 것을 사도 야고보는 경고했다 (약 4:4).

둘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지만 아직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거하고 있기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때문이라.**” (롬 8:18)고 증거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골 3:4)고 증거했다.

셋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오는 환란들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환란들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진정으로 조만간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며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큰 소망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고 말씀하셨다.

빛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불쌍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부어질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의 비결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고 권면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그의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무릎꿇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 속에 부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도 우리를 대항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간절하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증거했다. 하나님의 사랑(Love 가 아닌 Charity)이 마음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증거하면서 믿음과 소망 위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증거했다 (고전 13:1-13)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은 그의 증거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더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롬 5:9)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날로부터, 다시 말해서 대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모든 환란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계 2:9)라고 말씀하셨고,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도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8, 10, 11)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10-17-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7:1-27

Main scripture: Romans 5:1-11

Subject: The love of God, and the life rejoicing in the hope of the glory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life of Christians that received righteousness freely and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t the same time, he also testifies of the hope through the holiness by the blood of Christ. He also testified for the Hebrew Christians saying,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Heb. 10:10)

He also testified of the blood of Christ that purges the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when whosoever repent sincerely, an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r (Heb. 9:14). In other word, we can receive the great grace so that we may serve the living God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when our conscience is purged by the blood of Christ.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privilege of the life of Christian; and that privilege should be chosen by individual whether to take or not.

Firstly,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In other word, we have been reconciled with God from his enemy through the blood of Jesus. Apostle Paul wrote to the saints of Corinthian church to encourage them: **“¹⁷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¹⁸And all things are of God, who hath reconciled us to himself by Jesus Christ, and hath given to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¹⁹To wit,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unto himself, not imputing their trespasses unto them; and hath committed un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²⁰Now then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did beseech you by us: we pray you in Christ's stead, be ye reconciled to God. “(2Cor. 5:17-20)

Yes! Now is our turn to have the relationship of peace with God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and in addition to it, we can have abundant peace with God through our job of the ambassadors for Christ to reconcile the world unto him. On the other hand, Apostle James warned not to destroy the peace with God following the flesh instead of the Spirit so that we may be the enemy of God (James 4:4).

Secondly,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in any circumstance not forgetting the faith in grace given by the Lord Jesus Christ. Then what is the glory of God? In other word, it means to live in the faith of the hope that we shall have when the glory of God comes. We are to face with endless spiritual warfare even in the peace with God, for our body is still living in the world under the ruling of the devil. But this suffering shall be turn into the glory when the Lord Jesus Christ comes again.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blessing: **“¹⁸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Rom. 8:18)**

The glory for us shall be with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Lord Jesu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glory to the saints of the Colossian church: **“⁴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Col. 3:4)**

Thirdly, the spiritual Christina not only endures the tribulation, but also rejoices therein, for they rejoice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How they can rejoice in tribulation?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carnal Christian, but for the bride of Christ that is waiting for glorious appearing of the Lord Jesus Christ, it can be

rather joy. More they suffer more they may come into the faith of the kingdom of God; they are more separated from the world to enter the peace deeply in Christ to have greater hope. Lord Jesus encouraged the disciples saying, **“³³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e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John 16:33)**

Fourthly,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secret how to have peace in tribulation. Upon seeing the tribulation against the Christians, it may be miserable and shameful to the eyes of the worldly people as well as carnal Christians. But the love of God shed abroad in their heart free them from all kinds of shame. Apostle Paul encouraged the saints of Philippians church saying, **“⁶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⁷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Phil. 4:6,7)**

Then what is the love of God? It is the love that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the only begotten Son unto death for the sin of the world that was his enemy to give the remission of the sins. When the children of God kneel down and pray in the midst of persecution and tribulation, the love of God shall be shed in their hearts by the Holy Ghost. When this love of God is shed in our hearts, we can also love and forgive them that are against us with persecution. Apostle Paul called the love of God as the best gift, and asked the saints of Corinthians to covet earnestly the charity of God. He also emphasized that he is nothing without charity. He testified that charity suffers long, and is kind; charity envies not; charity vaunteth not itself, is not puffed up; it not behaves itself unseemly,

seeks not for her own, is not easily provoked, thinks no evil; rejoices not iniquity, but rejoices in the truth;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Charity is the greatest one above faith and hope (1Cor. 13:1-13).

Finally, they that live in the true hope waiting for the glory of God can have joyful life in Go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In other word, all the joy of life is put in the word of promise. Especially, the joy in God emphasized in the main passage is shown in the testimony of Apostle Paul as said, **“⁹Much more then, being now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Rom. 5:9)**

In other word, their joy comes from deliverance from the Day of Judgment that is the Great Tribulation against unbelievers and wicked ones.

Lord Jesus appeared to Apostle John, and spoke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⁹I know thy works, and tribulation, and poverty, (but thou art rich).”(Rev. 2:9)**

He also spoke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⁸I know thy works: behold, I have set before thee an open door, and no man can shut it: for thou hast a little strength, and hast kept my word, and hast not denied my name..... ¹⁰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¹¹Behold, I come quickly: hold that fast which thou hast, that no man take thy crown. “(Rev. 3:8,10,11)**

Let us hold fast the words of faith, and have peace in the Lord, and live in holiness to appear with him gloriously. Hallelujah!